



Good Morning Everybody	04 사랑으로 빛어진 기적의 쉼터 - 김경희 이사(前 연세세브란스병원 간호팀장)
Good Morning Family	06 2017 여름캠프 - “행복한 여름의 추억” 08 2017 송년잔치 - “특별한 겨울을 위한 행복한 고민” 10 2017 외국인환아 연말파티 - “낮선 땅에서 느낀 고국의 크리스마스”
Good Morning Children	12 완치자 이야기 (유경아) -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Good Morning Sunshine Friends	13 후원자 이야기 ① (가온누리어린이집) - “천사들이 전해준 행복” 14 후원자 이야기 ② (김훈겸 후원자) - “기부의 행복은 내 삶의 원동력” 16 의료진 이야기 (연세암병원 신윤정 파트장) - “나는 세브란스병원의 원조 소아암 전문 간호사”
Good Morning My House	18 한빛사랑하우스 이용자 후기 - “나의 두 번째 집” 20 사랑하우스가 달라졌어요 - “소아암가족들의 진정한 힐링하우스” 22 사랑하우스를 소개합니다.
Good Morning Hanbit	24 2017 하반기 한빛/후원 NEWS 25 2017 후원자 명단 26 2017 결산현황 27 2017 하우스 이용현황, 물품후원내역 28 후원안내 및 모집 29 정기후원(CMS) 신청서 30 포토에세이 31 개인정보변경 및 이용신청안내

사랑으로 빚어진 기적의 쉼터.



지금의 한빛사랑하우스를 바라보고 있다면 14년 전 그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소아암NGO한빛이 설립될 당시의 모습을 돌이켜본다면, 지금의 모습은 아마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설립 부터가 하나의 기적이었을까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내 소아암병동 수간호사로 근무할 당시 현재 대표이신 유철주 교수님께서 환우와 가족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싶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은 너무 좋고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지만 설립된 이후에 지속적인 금전적, 인력적인 지원이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큰 포부를 갖고 시작하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하고 없어질 수도 있으리란 우려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나의 단체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드는 것인데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단체가 사그라드는걸 볼 수도 있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우려와는 달리 한빛하우스를 마련하는 것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정말 기적과도 같이 고마운 분들이 많이 모여 2004년 드디어 한빛 하우스가 문을 열었고, 2014년에는 또 하나의 하우스를 매입하여 지금은 사랑하

한빛사랑하우스

우스까지 두 채의 하우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걱정과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의 이 모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해준 많은 분들의 사랑과 수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곤 알기에 그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아암NGO한빛뿐 아니라 소아암 환아의 치유를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유철주 교수님을 비롯해서 한빛, 사랑 하우스의 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또 늘 고생하시는 환우와 가족



분들, 그리고 저희 단체를 후원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과 봉사자님들 한분 한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수고가 더해져서 이룬 한빛, 사랑하우스가 올해에도 더욱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은 환우와 가족들이 치유와 위로를 받는 공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소아암NGO한빛을 위해 많은 도움과 격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아끼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아암NGO한빛 이사
前 연세세브란스병원 간호팀장

김경희

06.

Good Morning
Family



행복한

여름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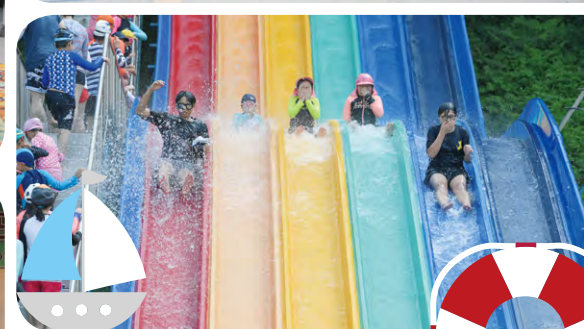
(2017 여름캠프)



이른 아침부터 병원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모두들 한껏 들뜬 표정으로 커다란 가방을 맨 채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날은 일년에 한번씩 떠나는 소아암 가족들의 여름캠프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석하는 가족도 올해 처음 참석하는 가족들도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는 한시간 남짓을 달려 경기도 양평의 한 연수원에 사람들을 내려주었습니다. 올해 장소로 선택한 곳은 kobaco연수원으로 나무가 빼곡하고 주변에 호수가 흐르는 그야말로 경관이 뛰어난 힐링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매년 여름마다 여름캠프를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이의 투병으로 인해 지쳐있는 가족에게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올해도 많은 것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선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아이들과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 속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가족간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숙소 바로 옆에 수영장 있어서 제대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하는 수영장에서의 물놀이 덕분에 여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들만을 위한 힐링의 시간인 발레교실과 아버지들의 묵혀두었던 축구실력을 볼 수 있었던 축구대회,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준비된 레크레이션시간을 통해 온 가족을 위한 맞춤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장기자랑과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다시금 가족간의 끈끈한 정을 느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족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려주세요.



특별한 겨울을 위한 행복한 고민

(2017 송년잔치)



우리는 매년 12월이 되면 특별한 하루를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굳건하게 싸워 이겨낸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날도 소아암 아이들이 주인공인 특별한 잔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하루를 위해 아이들은 어떤 선물을 더 좋아할지, 어떤 공연을 더 즐

거워할지를 행복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소아암에 걸렸지만 완치되어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배 소아암환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현재 치료중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에 마련된 시간을 통해 소아암이라는 공통분모가 주는 유대감속에



서로간의 끈끈한 마음이 오고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인이신 김정민 명창께서 직접 오셔서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한 마디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최신형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멋진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기독교학생 연합회에서 오셔서 멋진 노래를 들려주셨습니다. 분위기 있는 노래가 연말의 기분을 더 흥겹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술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아이템으로 어른들과 아이들의 눈을 휘어잡은 마술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한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신나는 댄스를 보여준 PK댄스팀의 시간이었습니다. 현란한 춤사위와 함께 얼굴 가득했던 댄스팀원들의 행복한 미소 덕분에 더욱 행복한 기분이 커져만 갔습니다. 마지막은 타악기 공연을 보여준 ART-O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독특한 남미의

느낌이 물씬나면서 이국적인 타악기 공연을 보고 있으니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또 한명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도 소아암환아들을 돌보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선물을 건넸던 권민지 환아의 어머니께서 올해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어머니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분들도 소아암 아이를 돌보고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어머니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텐데 그 마음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위로해 주는 모습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과 인사를 할 때에는 내년에는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만나자는 희망이 담긴 인사를 건넸고, 그렇게 이날의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 곳에 모인 우리들의 소원은 모두 같았습니다. 이 곳에 모인 모든 아이들이 완치되어 행복한 미래를, 어른으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365일의 1년의 시간 중 단 하루에 불과했지만 아이들이 지난 1년간 감내해야했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위로했기를 바라며 올해 행사가 끝나자마자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송년잔치를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아!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훌쩍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자!



낮선 땅에서 느낀 고국의 크리스마스

(2017 외국인환아 연말파티)



크리스마스는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특별한 날입니다.

특히나 낯선 외국땅에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더 남다를 것입니다. 현재 한빛사랑하우스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환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소아암환아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국을 떠난 이들에게 연말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환아들을 위해서 특별한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카자흐스탄식으로 진행된 2017 외국인환아 연말파티가 그것입니다. 올해 처음 진행된 이번행사는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팀과 협업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크리스마스는 빨간 옷을 입은 산타할아버지가 루돌프와 함께 썰매를 끄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카자흐스탄식 크리스마스는 파란 옷을 입은 산타할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선을 확 잡아끌었습니다. 한국말로 진행되고 통역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언어를 쓰는 현지인에 의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 예쁜 모습으로 한껏 맛을 내고 참석한 아이들 덕분에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었습니다. 신나게 게임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나니 어느새 어색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즐거운 파티만이 남았습니다. 다소 낯선 카자흐스탄식 크리스마스파티였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나라 말을 실컷 사용하며 자신들에게 익숙한 산타할아버지와 함께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니 이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맞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현지의 느낌으로 진행된 파티였기에 음식도 러시아식당에서 주문을 해서 평소 고향에서 먹는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며 파티의 열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전해준 선물을 전달하며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빌어주며 파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치료를 위해 벌써 1년 이상 낯선땅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고향땅을 떠나오면 그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린 아이가 친구 하나 없는 낯선땅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이들지 생각하면 가슴한켠이 묵직해옵니다. 비록 단 하루였지만 아이들에게 잊지 못한 고향의 향수를 마음껏 느꼈기를 바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준비와 함께 더 많은 아이들에게 고향의 크리스마스를 느끼게 해 주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떠날날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힘내자! 화이팅!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암이라는 것은 내게도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내 몸에 생긴 암이라는 것을 접했을 때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어렸던 내게 그 병이 올 거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느새 암환자가 되어 있었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치료를 받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이 현실을 받아들이 수가 없어서 울기도 많이 울며 현실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도 가고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도 싶었던 평범했던 12살 사춘기 소녀였던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의 이 상황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 암에 걸린 뒤 치료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단다. 하지만 너는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니.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뿐이라고 생각하자”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꼭 안아주었고 그것은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면서 나에게 투병시기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또 꿈드림&기린아 모임을 하면서 병에서부터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임을 나오기 전에는 나의 병을 모르는 사람들이 ‘암은 불치병이지’라는 식의 발언을 했을 때 그냥 웃고 지나갔는데 모임에 나가면서부터는 당당하고 힘차게 그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집중치료가 끝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유지치료 중인 환자이자 대입 준비에 한창인 고2입니다. 하지만

만 20살 성인이 되면 같이 투병했던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투병 중인 친구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투병하는 시기는 힘들고 또 힘들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에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되어주었습니다. 또 미래에 역사선생님이 되어서 수업을 듣기 힘든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수업봉사도 하고 싶은 꿈도 생겼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제는 나의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더욱 당당한 소아암완치자가 되어 나의 남은 날들을 멋지게 살아갈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행복

핑둥! 핑둥!

“택배입니다. 여기가 한빛사랑후원회맞나요? 전 은선님으로부터 택배왔습니다.”

이른 아침 밝고 경쾌한 택배기사님의 초인종소리에 무엇이 왔을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기사님은 팔랑거리는 소리가 가득한 A4박스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핑크색 예쁜 박스에서 짹짹 동전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궁금한 마음에 박스를 열어 본 우리는 놀라움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28개의 연두빛 저금통이 들어있었는데 하나씩 아이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저금통이라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라면 많아봤자 5살, 6살 아이들일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저금통이 채워져 가는 걸 지켜봤을지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얼른 연락처를 뒤져 저금통을 보내주신 후원자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금통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나눔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한 연초에 저금통을 하나씩 나눠주었고 연말에 모아진 저금통을 의미있는 곳에 보내고 싶어 제가 후원하고 있는 한빛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1년 동안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인 소중한 것이니 좋은 곳에 사용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이 간식을 사먹고 싶은 마음을 참아가며 1년 동안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부어 완성한 각자의 저금통은 그야말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기부의 행복은 내 삶의 원동력



Q1.
후원자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르덴셜생명에서 4년째 라이프 플래너로 일하고 있는 김훈겸입니다. 그 이전에는 10년여간 신촌 세브란스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암환자를 치료해주는 '치료전문 방사선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아내(김경은)와 7살된 예쁜 딸 지우, 4살된 예쁜 아들 윤우 이렇게 4가족이서 부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빠입니다.

Q2.
후원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치료전문 방사선사로 근무를 하면서 매일매일 암환자를 치료해드리고 보호자들과 마주하며,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치료를 잘 해드리고, 정신적으로 도와드릴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고, 환자와 보호자분들에게 웃음과 안정을 드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 암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암자바밴드"를 하면서, 년 2~3회 공연을 하여 공연 수익금 전액을 암환자에게 기부하였는데, 그때부터 기부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방사선사로서의 열정과 일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생활 하던 중 2015년 전직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세브란스병원에서 받았던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자 매년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의미 있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싶었고, 좋은 곳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나, 세브란스병원과 조금이나마 인연이 있는 분들이 제 고객이 되시면, 그분들의 보험료 중 일부를 적립하여 매년 기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암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원하면 꼭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근무할 시절에 소아 백혈병 아이들의 '전신방사선 치료'도 담당을 하였는데 안타까운 사연들, 너무나 예쁜 아이들, 또래 아이들보다 더 어른스럽고 씩씩하게 병마와 싸우며 견뎌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치료 이후에 사회생활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알게 되었고, 소아암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게 해주는 원동력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매년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Q3.
나에게 직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푸르덴셜에서 처음 같이 일해보자는 제의가 왔을 때, 가운을 입고 암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만족스럽고, 보람된 일인데 왜 나한테 이런 제안이 왔을까 1년을 고민한 끝에 전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오는 암환자를 치료해드리는 일보다 조금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준비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피해를 조금이나마 잘 이겨 내기 위해 도와드리는 일을 하자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참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의 방법이든, 선한 마음에서 우리나라와서 삶을 진정 윤택하게 해준다면 이 또한 보람된 삶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Q4.
나에게 나눔이란
무엇인가요?



빵이 두개 있을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빵 하나를 건네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빵이 하나 있을 때 그것을 쪼개서 나눠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유가 많아서,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서 나누는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현재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 나눠주는게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았을 때 당연히 기분이 좋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줬을 때의 기쁨은 그것보다 몇배는 더 기쁘고, 값지게 느껴집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 힘쓰는 것 보다, 조금이나마 나눠주고, 함께 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밝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작은 밑알이 매년 하고 있는 소아암환자에 대한 기부이며, 이로 인해 저 또한 많이 성숙해지고,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고,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그리고 소아암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원하면 꼭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는 한빛사랑후원회 선생님들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왼) 신윤성 파트장 / (오) 한정화 코디네이터〉

나는 세브란스병원의 원조 소아암 전문 간호사

처음 이 글에 대한 부탁을 받고나니 19년전 처음 세브란스병원에 출근을 했던 그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던 저는 고민이 가득한 며칠을 보낸 후에야 제가 처음 소아암 아이를 만났던 순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9년 11월, 중환자실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간호 학생은 원하지 않은 소아과 병동에 발령이 난 후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귀여운 소아암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아마도 사람들은 간호사가 병원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투약하고, 증상을 기록하는 등 항상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아암아이들을 돌보는 간호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와 이런 얘기를, 내일은 이 아이에게 이런 선물을 줘야 하는 설렘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부터 병원 근무가 즐거워졌습니다. 물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제게 느끼게 해준 것도 소아암 아이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완치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갑작스런 이별에도 스스로 감당하고,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소아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제 후배가 표현한 것이지만 어벤저스와 같습니다. 그냥 간호사는 안됩니다. 어벤저스 정신으로 푹푹 뭉친 간호사여야만 합니다. 바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제게 대학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를 준 것도 소아암 아이들을 간호하면서 입니다. 소아암 아이를 간호하는 것은 기존의 대학교 때 배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질병 및 증상, 그러한 것에 대



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혀야.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 더 좋은 간호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University of Cincinnati에 가서 석사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짧은 영어이지만 나는 소아암 아이들을 가장 많이 간호했다고 얘기하면서 제일 많은 실습시간을 Cincinnati Children's Hospital의 소아혈액종양과에서 보냈습니다. 2002년 이 곳에서 완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래 클리닉을 실습하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완치가 되고, 완치된 이후에도 건강관리를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아이가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신체적, 심리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유철주 교수님과 완치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클리닉을 구상하고, 여러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처음 시작한 완치클리닉은 지금 생각해도 벽차고 힘들었지만, 가장 즐겁고 보람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소아암 간호사 24명, 소아암 아이들 38명 그리고 보호자 38명, 총 100여명과 함께 암병원 12층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곳은 마음이 따뜻한 간호사들과 귀여운 아이들에서부터 멋지고 예쁜 청소년 소아암 아이들, 그리고 마음으로 서로 토닥거려주는 보호자들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일에는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은 함께 의논하면서 126병동 동지 안에서의 아침은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나의 두 번째 집



처음 태안에서 종양같은 것을 발견하고는 동네 병원을 찾았다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력으로는 암으로 아팠던 사람이 한명도 없었기 때문에 암이라는 것이 너무도 생소했습니다. 현실을 믿지 못하고 오진이라 생각하며 추가로 여러검사를 받고 난 후에야 겨우 골육종이란 판정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접해보는 암이라는 병과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에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봤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설명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지 속에 첫 항암치료를 하면서 하루가 얼마나 긴지 새삼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아이가 견뎌야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항암을 마치고 아이와 저는 가족의 위로가 필요했기에 부랴부랴 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내려온 그날 토를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힘들어하는 아이 때문에 서둘러 세브란스 응급실로 다시 입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내려가는 것조차 겁이 나고 병원 가까운 곳에 설 곳도 필요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아암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한빛하우스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길로 하우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낯모를 사람들이었지만 서

로 가족같이 생활하고, 배려해주며, 걱정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내면서 암에 대한 지식도 알게 되고 음식도 만들어 함께 나눠먹으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여기에서 지낸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이 곳은 저와 우리 아이에게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다리에 골육종이 생긴 우리 아이와 저는 가까운 거리에서 병원을 다닐 수 있고 안심하며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우스의 목사님과 권사님은 다리가 아픈 우리 아이를 위해 병원을 오갈 때면 늘 차로 태워다 주시고, 소아암 치료중인 아이들의 체력을 위해 무엇이든 먹이시려고 매일같이 장을 봐주시며 열심히 돌보아 주셨습니다. 늘 한결같은 그 모습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만약 하우스나 돌봐주시는 분이 안계셨더라면 낯선 서울아래서 아이와 저는 외롭게 지내며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도 힘겹게 버텼을 것입니다. 한빛하우스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항암치료가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잘 이겨주리라 조심스럽게 기도합니다.

66
사람들은
낯모를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가족같이 생활하고,
배려해주며, 걱정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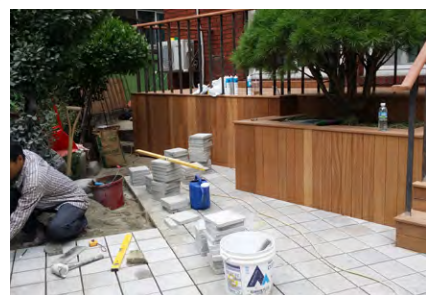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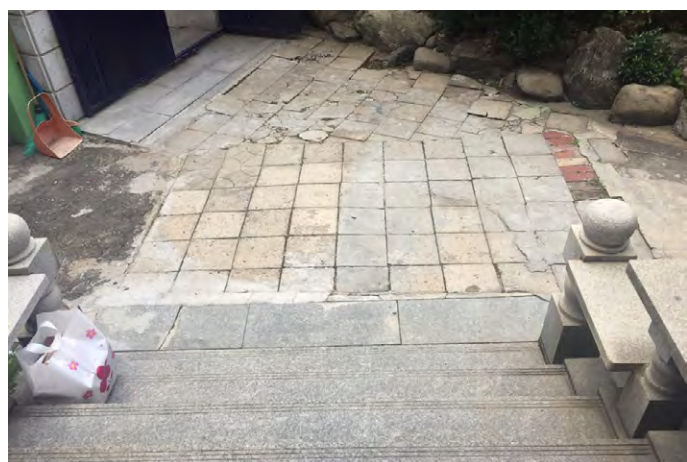
2015년 10월 두 번째 하우스인 사랑하우스를 오픈한 이후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안방, 주방, 거실, 보일러 등 차례차례 소아암가족들이 사용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자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모든 공사들은 내부공사였습니다. 하지만 깨어진 마당과 금이간 외벽, 흔들거리는 계단난간 등 아직도 손봐야 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없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사랑하우스의 대대적인 외부수리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깜짝 놀랄 변화가 이뤄진 사랑하우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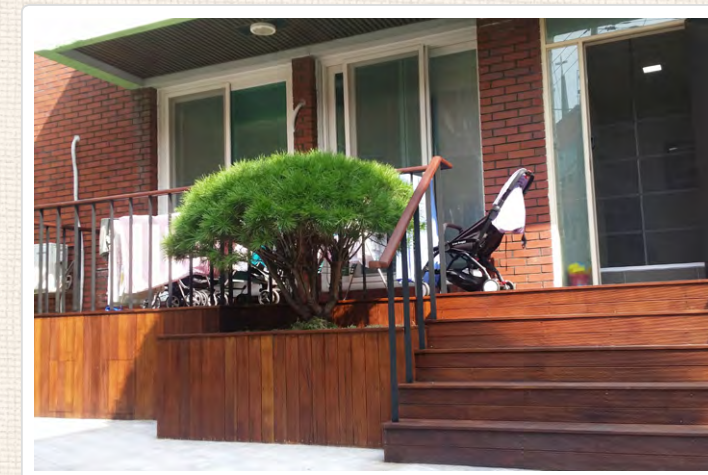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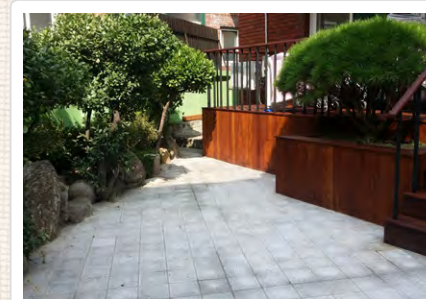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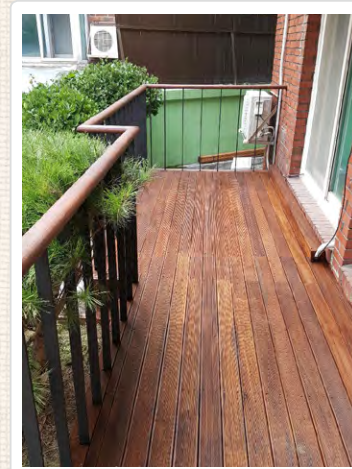


소아암가족들의 진정한 힐링하우스

Before



After



소아암가족들에게 더 큰 행복과 힐링을 선물하고자 진행된 사랑하우스 공사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힐링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빛사랑하우스를 소개합니다.(2)

이곳은 소아암 아이들의 사랑하우스입니다.

2015년 10월 5일에 오랫동안 숙원하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더 많은 소아암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두 번째 하우스가 문을 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한빛하우스가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라면 두 번째 사랑하우스는 좀더 여유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길게 심어져있는 나무들 속에서 팬션에 와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애초에 두 번째 하우스는 보다 힐링의 느낌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고, 몇 번의 공사를 거치면서 이전 제법 멋드러진 모습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하우스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응원을 보내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우스는 지금도 소아암가족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우스에서의 쉼과 힐링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주세요. 늘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빛사랑하우스 이용신청

소아암 환자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하우스는 창천동과 연희동에 각 1개씩 총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빛사랑하우스의 이용을 원하시는 소아암 가족께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세요.



신규신청

연세암병원 소아암코디네이터
(02-2227-4175)



확인

코디네이터 이용 승인
(개별 유선 통지)



입주

관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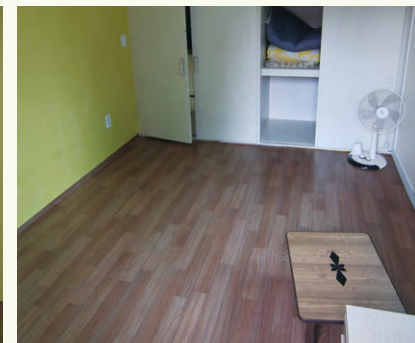
1) 외관



2) 1층(Room갯수 : 3개)



3) 2층(Room갯수 : 2개)



하반기 한빛 NEWS

2017 소아암가족
여름캠프

올해 여름캠프는 8/6(일)~8/8(화) 2박 3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kobaco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신나는 물놀이,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바비큐파티, 캠프파이어 등을 통해 가족들의 행복한시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2017 외국인환아
연말파티

12/20(수)에 한국에서 치료중인 외국인 환아를 위한 연말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연말 느낌이 물씬 풍기는 행사와 음식으로 준비된 이번 파티를 통해 고향의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공모전 수상

- ① 해피빈 : 하반기 네이버 Ngle's 기금 선정, 따뜻한 동행(후원수기) 3등, 최종후기 우수단체 선정
- ② 아모레퍼시픽 : 아리따운 물품수령단체 선정
- ③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따뜻한 이야기(수기공모전) 3등

물품후원단체 명단

- ① 본아이에프(주) : 쌀, 김치, 분죽, 상품권, 치킨 (매달 정기후원)
- ② 한국소아암재단 : 마스크, 신발, 홍차, 황치열CD, 메디폼밴드, 향균소독제, 쌀
- ③ 삼성생명 : 믹서기, 차약, 피죤, 키친타올, 퍼실세제, 피죤, 주방세제, 휴지, 잡곡 (매달 후원)

연말 후원자 명단

연말을 맞이하여 소아암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소중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 ① (주)제이제이무역 2,500,000원 ② 고복희 2,500,000원 ③ 정예지 3,000,000원
- ④ 코코스타 10,000,000원 ⑤ 이은경 50,000,000원



2017 송년잔치

매년 연말 진행된 소아암 아이들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한 송년잔치가 올해에는 12/20(수)에 연세암병원 지하3층 서암강당에서 진행되었는데 150여명이 함께한 즐거운 다채로운 공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세의료원
연말 예매 현금 후원

연세의료원 원목실에서는 2017년 연말감사예매를 드리며 모아진 현금 3,644,273원을 소아암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회원

(2017년 1월~12월 후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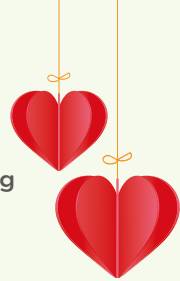
1. 정기후원회원

5천원	강미영, 강영린, 김순호, 김윤영, 김은채, 김희은, 목미수, 박선미, 박정순, 배정임, 변미라, 오미영, 이선희, 이수진, 이희경, 조미영, 조은희, 한유영
1만원	강나영(이순애), 강보성(강성진), 곽규근, 구본미, 권수영, 권영준, 김경미, 김경민, 김경숙, 김남현, 김두진, 김선정, 김영복, 김영숙, 김영은, 김영희, 김유민, 김은경, 김은수, 김재훈, 김중수, 김주희, 김지선, 김진국(배봉선), 김진아, 김진영, 김춘희, 김충선, 김해용, 김현이, 김현정, 김혜숙, 김혜연엄마(박영숙), 김혜진, 김희진, 나수연, 류석현, 모민희, 목현희, 문경순, 문숙희, 박경자, 박금분, 박미나, 박미자, 박선정, 박선희, 박영란, 박옥선, 박우석, 박은선, 박은재, 박정선, 박진배, 박태선, 방사무엘연상, 방인숙, 배길선, 백기범, 백윤수, 백일영, 변은숙, 서연자, 서진근, 석미영, 성세희, 성정숙, 손유진, 송기원, 송미란, 송수경, 송현주, 신혜경, 심소정, 안상민, 양재승, 오한나, 우남칠, 원호성, 유경화, 유기성, 유성호, 유연숙, 유주영, 윤성현, 윤순애, 윤옥진, 윤유진, 윤장용, 이갑우(이종업), 이경재, 이광환, 이규강, 이규현, 이동구, 이숙현, 이승환, 이영혁, 이영희, 이은우(이종업), 이은정, 이인숙, 이정숙, 이정순, 이종숙, 이종호, 이주현, 이진호, 이철수, 인수진, 장문수, 정규성, 조길수, 조미영, 조형희, 지명희, 진미선, 최문근, 최병숙, 한경미, 한수영, 현도윤, 현승준, 현창룡, 홍영숙, 홍종란, 황은화, 황인희, 황정원, 황한별
2만원	강유미, 강이안, 고희길, 김나원, 김미숙, 김미희, 김선화, 김수경, 김영자, 김왕배, 김재실, 김종옥, 김지영, 김현숙, 김현정, 김혜경, 김혜양, 나윤경, 남윤성, 등촌교회 사라 1 전도회, 박민서, 박은영, 박현아, 박현우, 박희옥, 배석진, 서연제(서정희), 송민정, 양해란, 유기욱, 유수환, 은종선, 이난향, 이명임, 이배환, 이상정, 이상호, 이유미, 이윤선, 이지수, 이진희, 이초지, 이현빈, 임재순, 임지선, 장미경, 장은조, 장진희, 정광호, 정윤희, 정인호, 정현근, 조달남, 최영애, 최인경, 하미경, 한수영, 한재원, 한정화
3만원	고애란, 기초자, 길정은, 김경숙, 김경희, 김광재(최은희), 김금주, 김현진, 김홍익, 박성희, 박유선, 박홍이, 유재덕, 이승순
5만원	강창무, 김도연, 김선희, 동아스지, 등촌교회 사라 2, 4 전도회, 등촌교회 안나 1, 2, 4 전도회, 신윤정, 신현주, 윤공심, 이현영, 정동월, 창천교회 나옴선교회, 창천교회 병원선교회
10만원	강명선, 권승연, 기쁜소식교회, 김남현, 김진희, 박송희, 박송원, 이유빈, 이지은, 한국예수님의 사람들(COJK)
15만원	정만희
20만원	김성경, 문현철, 산돌교회, 이지은, (주)브레인씨앤씨
25만원	배길선
40만원	청아장학재단
50만원	배명자, 이은주
100만원	유철주, 이은경

2. 일시후원회원

금액	후원자명	금액	후원자명	금액	후원자명
5,000	하선주	180,000	이정혁	660,000	한국예수님의 사람들(COJK)
10,000	이승현, 이윤호	200,000	창천교회 한나여선교회, 이기조	1,000,000	신형주, 김경흠, 창천교회 병원봉사팀
20,000	유호재	216,720	가은우리어린이집	1,332,620	기린아꿈드림
30,000	박병학	230,000	민주원(황미아)	2,388,200	기린아 캠페인수익금
40,000	이승현	240,000	김예나	2,500,000	(주)제이제이무역, 고복희
50,000	송은주병원봉사회, 외래항악물치료센터	300,000	꿈꾸는뿌리카페, 강해서	3,000,000	전은배, 정예지
60,000	이승옥, 최승관(최윤우)	320,000	백은비	5,000,000	김민석
80,000	남상언, 노영강, 배연정, 이경훈, 이승옥, 장한나, 정현아	340,000	송시원, 이정원	10,000,000	코코스타
100,000	HART, 조현우, 어세준, 이승현	440,000	김준성	23,000,000	이싹희
150,000	박유진	500,000	신효명, 창천교회 한나여선교회 (여름캠프후원), 정병철, 회원이친구	50,000,000	이은경





2017년 한빛사랑후원회 사업수지 결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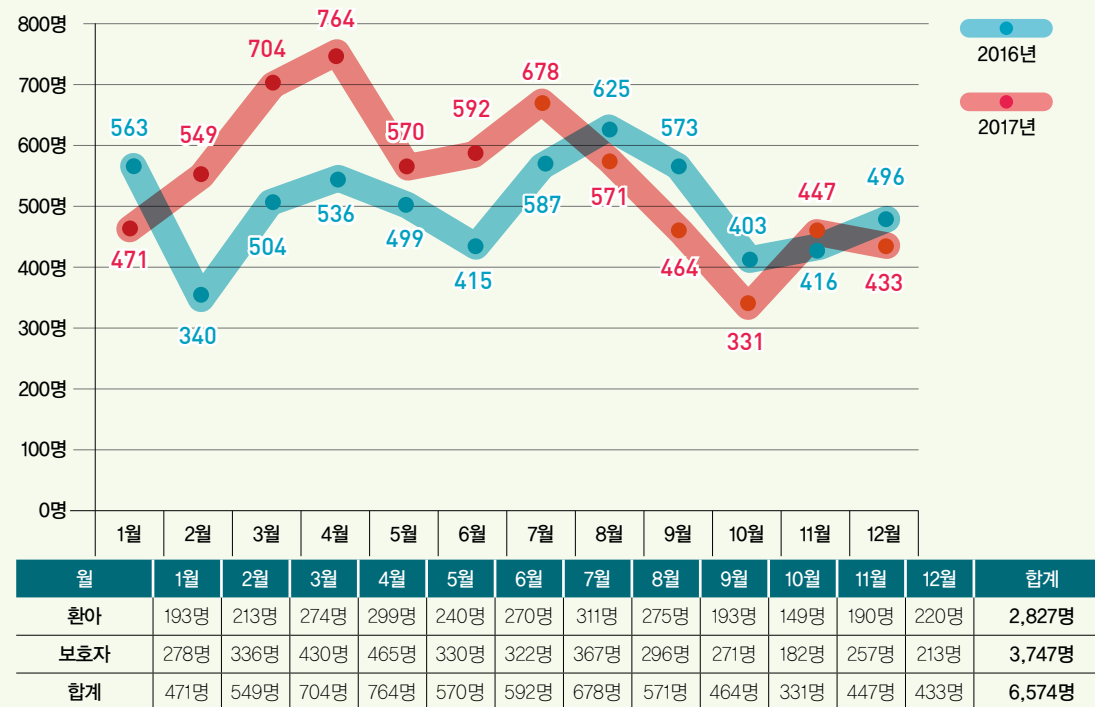
(2017.01.01~2017.12.31)

계정과목	결산액	계정과목	결산액
세입		세출	
1. 후원금 수입	75,135,156	1. 소아암 NGO 한빛 사무국 운영	
전년이월금 소계	75,135,156	1) 인건비	52,539,707
2. 후원금 수입		2) 운영비	40,300,221
1) 정기후원		3) 소식지 제작 및 발송	7,008,022
1-1) CMS후원	54,947,555	4)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0
1-2) 계좌이체 후원	48,476,000	5) 후원 개발 및 관리	1,694,368
2) 현물후원		소아암NGO한빛 사무국 운영 소계	101,542,318
3) 특별후원		2.한빛사랑하우스운영(소아암센터)	
3-1) 하우스 이용자 후원	59,005,487	1) 공동운영비	
3-2) 단체후원	20,865,960	1-1) 인건비	15,800,000
3-3) 일시후원	88,127,920	1-2)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	35,901,783
3-4) 해피빈	93,540,300	1-3) 정수기렌탈요금	1,371,600
4) 지정후원		2) 한빛하우스(창천동)운영	
4-1) 치료비 및 운영비 후원	23,000,000	2-1) 가스요금	4,841,010
4-1) 사회복지기관 개보수 지원사업	20,000,000	2-2) 방송수신요금	298,390
후원금 소계	407,963,222	2-3) 방역요금	1,440,000
3. 잡수입		2-4) 전기요금	3,635,150
1) 이자수입	64,736	2-5) 수도요금	1,186,310
2) 기타잡수입	3,657,597	2-6) 인터넷 및 전화요금	746,730
잡수입 소계	3,722,333	2-7) 시설개보수비	0
세입합계	486,820,711	2-8) 재산세	720,540
		3) 사랑하우스(연희동) 운영	
		3-1) 가스요금	2,503,000
		3-2) 방송수신요금	548,850
		3-3) 방역요금	1,272,000
		3-4) 전기요금	1,150,920
		3-5) 수도요금	835,120
		3-6) 인터넷요금	248,280
		3-7) 시설개보수비	31,260,000
		3-8) 재산세	950,880
		4) 사랑하우스 매입	157,419,249
		한빛사랑하우스운영 소계	262,129,812
		3. 치료비지원사업	7,271,510
		치료비지원사업 소계	7,271,510
		4. 잡지출	1,919,920
		잡지출 소계	1,919,920
		5.소아암환아지원사업	
		1) 완치자지원사업(기린아)	0
		2)소아암가족지원사업(오해피데이,소식지)	7,126,669
		소아암환아지원사업	7,126,669
		세출합계	379,990,229
결산 잔액			106,830,482



하우스 이용현황, 물품후원내역

1. 2017년 한빛사랑하우스 이용현황 (단위:일별 실인원 합계)



2. 2017년 한빛사랑하우스 후원물품 내역

1월	본사랑(상품권/본죽 50개,쌀40kg,김치40kg,치킨1box), 삼성생명(좌식의자, 퍼실세제, 주방세제), 강여민(굴 6box), 이빛나(쌀 40kg), 이예림(사과 1box)
2월	본사랑(상품권/본죽 50개,쌀40kg,김치40kg,치킨1box), 삼성생명(포도씨유, 참기름,참깨), 박채영(참치,햄), 이빛나(쌀 40kg)
3월	본사랑(상품권/본죽 55개,쌀40kg,김치40kg,치킨1box), 삼성생명(퍼실세제, 주방세제), 소아암재단(쌀 20kg), 수영(오분도쌀 20kg), 이빛나(쌀 40kg)
4월	본사랑(상품권/본죽 50개,쌀40kg,김치40kg,치킨1box), 삼성생명(퍼실세제, 주방세제), 소아암재단(유아용이불 12세트, 쌀 20kg), 이빛나(쌀 40kg)
5월	본사랑(상품권/본죽 50개,쌀40kg,김치40kg,치킨1box), 삼성생명(선풍기2대, 파존), 소아암재단(쌀 20kg), 이빛나(쌀 40kg), 박건희(쌀 20kg)
6월	본사랑(상품권/본죽 50개,쌀40kg,김치40kg,치킨1box), 삼성생명(퍼실세제, 섬유유연제), 소아암재단(쌀 20kg), 이빛나(쌀 40kg)
7월	본사랑(상품권/본죽 50개,쌀40kg,김치40kg,치킨1box), 삼성생명(믹서기 2대), 옥나라(마늘 1집), 소아암재단(쌀 20kg, 동화책 100권), 광수산나(마늘 1집), 김병섭(옥수수 50개), 이빛나(쌀 40kg)
8월	본사랑(상품권/본죽 50개,쌀40kg,김치40kg,치킨1box), 삼성생명(차약, 파존, 키친타올), 강성수(오메기떡 1box), 소아암재단(쌀 20kg, 과자 12box)
9월	본사랑(상품권/본죽 50개,쌀40kg,김치40kg,치킨1box), 삼성생명(퍼실세제, 파존, 주방세제), 소아암재단(쌀 20kg) 전희찬(표고버섯 2box), 강성수(고등어,갈치), 김도호(감자 1box), 이빛나(쌀 40kg)
10월	본사랑(상품권/본죽 50개,쌀40kg,김치40kg,치킨1box), 삼성생명(퍼실세제, 휴지, 주방세제), 박건희(쌀 20kg), 소아암재단(쌀 20kg), 이빛나(쌀 40kg)
11월	본사랑(상품권/본죽 50개,쌀40kg,김치40kg,치킨1box), 삼성생명(찰흑미,녹미,적도미,참쌀,간독두), 동구엄매(사과 15kg), 소아암재단(쌀 40kg), 이혁(김치2box), 강나경(고구마 2box), 강공임(배추), 한태범(배추,무), 교회연합회(김치 80kg), 유철주(천혜향 2box), 이빛나(쌀 40kg)
12월	본사랑(상품권/본죽 50개,쌀40kg,김치40kg,치킨1box), 삼성생명(퍼실세제, 파존, 주방세제), 권민세(굴 5box), 소아암재단(쌀 20kg), 고정현(굴 1box), 이빛나(쌀 40kg)



소아암 아이들의 썬샤인 프렌즈가 되어주세요

-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

2004년에 설립된 소아암NGO한빛은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NGO)입니다.

- 한빛은 병원 가까이에 한빛하우스와 사랑하우스를 마련하여 소아암 아이들의 통원 치료를 지원합니다.
- 한빛은 치료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소아암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한빛은 학습지도가 필요한 소아암 아이들에게 학습봉사자를 1:1로 연계하여 교육 및 멘토링 활동을 지원합니다.
- 한빛은 소아암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미술치료, 나들이프로그램, 여름캠프, 가족운동회, 송년잔치 등의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합니다.

회원 형태	
개인후원자	매달 CMS 및 계좌이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단체후원자	매달 혹은 일시적으로 단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물품후원자	한빛사랑하우스에 필요한 물품, 식재료, 생필품 등을 후원해 주시는 분

후원 방법	
① CMS 납부	
홈페이지 가입	메인페이지 [후원하기] 혹은 [후원현황→후원신청→정기후원] 입력후 저장
후원신청서 작성	소식지내 [CMS 후원신청서] 작성 후 FAX, E-mail, 우편으로 발송
전화 가입	소아암NGO한빛 사무국으로 전화하여 가입신청을 요청

② 계좌이체 납부
은행 계좌이체는 본인이 직접 거래 은행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아래의 계좌로 후원금 입금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안내	우리은행 1006-001-303251 한빛사랑후원회
--------	------------------------------

③ 물품후원
한빛사랑하우스에 후원하고자 하는 물품을 직접 하단의 하우스 주소로 보내주세요.

소아암NGO한빛
주 소 : (03782)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11길 55 (창천동 53-60) 2층
연락처 : Tel : 02-3142-0675 / Fax : 02-3142-0670 / E-mail : hanbit_2004@naver.com

※ '썬샤인 프렌즈'는 소아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빛의 후원자입니다.

정회원

썬샤인 프렌즈

정기후원(CMS) 신청서

■ 회원 정보

회원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단체)		
성명		직장(소속)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후원 금액

월 정기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50,000원 <input type="checkbox"/> 3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CMS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 CMS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효성CMS, 금융기관, 통신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고객센터 운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되며 후원자정보는 공익을 위해 타 NPO단체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내용(약관)에 동의하며,
소아암NGO한빛의 정기후원(CMS출금이체)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30.

Good Morning
Hanbit

포토에세이

너의 어깨를 응원해!



맞잡은 두 손으로 힘껏
당신을 응원합니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맞잡은 두 손으로 당신의 어깨를 힘껏 응원합니다!

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하세요.